■ 산림청 산불진화 헬기 '영암호 참사'

물 퍼올리기 훈련중 의문의 추락

이륙 2시간만에 통신두절…조난신호 없어

119구조대 수색 1시간만에 영암호서 발견

23일 영암군 삼호읍 영암호에 추락한 산림청 헬기는 연락 두절 1시간 만에 구조대에 의해 발견됐으나 탑승자 3명 모두가 숨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정부 당국은 사고 현장에 조사단을 파견해 원인 파악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지만 사고원인 규명과 인양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추락한 헬기는 지난 6일 강원도 인제에서 추락한 헬기와 유사 기종인 러시아제 '카모프'로, 산림청 주력 헬기의 안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고 경위**=사고 헬기의 통신이 두절된 시각은 이날 낮 12시15분. 영암산림항공관리소의 계류장를 날아오른 지 2시간 만이다.

사고 헬기에는 기장 교육을 위해 교관인 박용규(52) 조종사와 교육생 이중배(46)·이용상(42) 부조종사 등 3명이 타고 있었다. 이날 헬기는 영암산림관리소사무소과 30분에 한 번씩 교신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수시로 교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헬기는 귀대를 앞두고 영암 상공을 비행하던 중 낮 12시15분께 갑자기 통신이 두절됐다. 긴급 상황시 자동으로 신호를 보내는 '위성조난발신기(ELT)'는 작동되지 않았는지 당시 해경에는 조난 신호가 접수되지 않았다.

항공관리소는 연료가 바닥날 시점인 오후 1시까지도 헬기가 돌아오지 않자 오후 1시25분께 119로 수색을 요청했다. 이후 소방당국은 오후 1시39분에 헬기 위치정보 조회를 시작했고, 오후 2시28분 영암호에 헬기가 추락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사고원인 규명 및 인양 '난항'**=이날 사고 헬기에 탑승한 3명은 사고지점인 영암호에서 '담수'(湛水) 과정을 교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헬기가 정지한 상태에서 물을 퍼올리는 담수 과정은 산불진화의 필수단계로, 고난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작업이다.

故 박용규씨 故 이중배씨 故 이용상씨

국토해양부와 산림청은 이날 사고 직후 사고대책반을 구성한 뒤 24일 오전부터 크레인이 탑재된 바지선을 이용해 헬기 인양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사고 원인을 명확히 해결해 줄 블랙 박스를 수거,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혀낼 계획이다.

그러나 수심이 깊고 개펄지대여서 인양작업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당국은 이날 기상조건이 좋았던 점 등으로 미뤄 작동 실수나 관리부실, 기체결함 등 5~6개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 기종 안전성 '도마'**=사고가 난 헬기는 러시아제 '까모프(KA-32T)' 기종으로 지난 1994년 국내에 도입된 뒤 산불진화 주력기종으로 사용돼왔다. 옛 소련에 빌려준 경협차관을 받지 못하면서 대신 현물 상환 조건으로 30대가 들어왔다. 하지만 국내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기종의 상당수가 '카모프' 기종이어서 러시아제 헬기의 안전성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실제 지난 6일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송전탑 건설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카모프(KA-32A)'가 추락해 조종사 등 2명이 숨지는 등 유사 헬기 기종의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영암=이종행·이상휴기자 golee@kwangju.co.kr

■ 사고 헬기 'KA-32T'

국내 30대 산불진화 주력

1994년 러시아에서 도입

23일 영암호에 추락한 러시아제 '까모프(KA-32T)'는 1994년 국내에 첫 도입된 뒤 산불진화 주력기종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모두 30대가 배치돼있다. 2중 로터에 꼬리날개가 없는 유일한 헬기로 최대 이륙중량은 11t, 최대 속도는 230㎞/h. 순항시간은 3시간20분이며, 연료적재량은 2천456ℓ 다. 최대 탑승인원은 18명이다.

■ 영암산림항공관리소는?

지난 2000년 7월 영암군 덕진면에 개소됐다. 산림항공관리본부 산하기관 8곳 중 1곳이다. 주요 업무는 산불 진화·항공 방제·외부 화물운반·대민 지원·산악 인명 구조 등이다.

운항 구역은 여수와 광양, 구례를 제외한 광주와 전남 전지역으로, KA-32T 헬기 4대와 Bell-206 헬기 1대 등 총 5대의 헬기를 보유하고 있다.

물 속 수색 23일 산림청 소속 헬기가 추락한 영암호에서 잠수장비를 착용한 119 구조대와 해양경찰 관계자 등이 물에 잠긴 헬기 동체 주변에서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영암=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국내 헬기사고 일지

▲2009. 11.23 낮 12시15분 : 러시아산 카모프 KA32T, 영암(교육비행), 교관 조종사 등 3명 사망.

▲2009. 11.6 오후 1시4분 : 러시아산 카모프 KA-32A, 강원 인제(공사현장 자재운반 중), 조종사 등 2명 사망.

▲2008. 2.20 새벽 1시5분 : 육군 UH-1H헬기, 경기도 양평(수송 업무), 승무원 등 7명 사망.

▲2007. 8.20 오전 8시8분 : BELL206-L3, 충남 공주(항공방제), 조종사 등 3명 사망.

▲2006. 7.27 오전 11시27분 : ANSAT(FP305), 충남 부여(항공방제), 사망 1명.

▲2001. 7.4 오전 7시20분 : Bell 206(FP705), 광양(항공방제), 경상 1명, 물적 피해 8억3천700만원.

음주사고 화순군의원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승휘 판사는 23일 음주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화순군 의회 A(45)의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의원은 지난 5월 13일 화순군 화순읍에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25%)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조모(15)군을 치어 전치 2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영업권 내놔" 조폭들 술집서 행패

쌍나팔

○…유흥주점의 영업권을 빼앗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주점에서 행패를 부린 조직폭력배 2명이 쇠고랑.

○…23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순천시 모 유흥주점 업주에게 1천만원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영업권까지 탈취하려한 A(33)씨 등 조폭 2명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 A씨는 '업소를 보호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입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선·후배에게 공짜 술을 제공해 업주와의 갈등이 고조됐다고.

○…경찰 관계자는 "잦은 횡포를 견디다 못한 업주가 동업관계를 해지하고 혼자 주점을 운영하려 하자 조폭의 '본성'을 드러냈다"고 설명.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임용 2년 … 날개 꺾인 조종사의 꿈

故 이중배·이용상 부조종사

"조종사건강기록부. 23일 수면·피로·정서·조식·투약…. 이상 무."

고(故) 이중배(46)·이용상(42) 부조종사가 운항 직전 남기고 간 마지막 자필 메모다. 고인이 떠난 산림청 항공관리본부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운항실은 슬픔에 잠겨있었다. 동료들은 뜻밖의 사고 소식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12월 말 육군과 해군에서 소령으로 예편한 뒤 이듬해 1월 11일 산림청 소속 공무원으로 나란히 임용됐다. 현재까지 총 비행시간은 각각 542시간(사고 헬기 비행시간 406시간)과 559시간(〃 412시간)이다. 이들은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한 달간 정조종사 양성훈련을 받을 계획이었다.

부조종사로 근무하던 이들은 평소 정조종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해왔다.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달력에는 빈 공간이 없을 만큼 훈련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고인의 한 동료는 "누구보다 열성적인 분들인데, 사고 소식이 아직까지 믿겨지지 않는다"면서 "정조종사 양성 비행훈련 첫 날인데, 무슨 변인지 모르겠다. 이날 오전 운항 직전 사무실에서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고인들은 각각 부인과 두 자녀를 둔 남편이자 아버지였다. 유족들은 "퇴근해서 보자고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헬기 조종사가 되겠다'고 했는데…."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청앞 집회 특정단체 독점

4개단체 '유령 집회' 논란

광주시청 앞 도로와 보도 등에서 이뤄지는 옥외집회 신청을 특정단체들이 독점한 뒤 정작 집회는 열지 않아 '유령 집회'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광주시청 앞에서는 매일 옥외집회가 예정돼 있다. 집회신청 단체는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인 광주시 지방행정동우회가 22일로 가장 많았고, 광주시 자전거연합회 11일, 광주시 새마을회 10일, 광주생활체육회가 5일을 각각 신청했다.

행정동우회는 교통질서와 기초질서 캠페인 등을 위해 시청 앞과 법원 등기국, 서부교육청 인근 보도 등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으나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집회를 열지 않았다고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